

한국어와 일본어의 주제문과 무제문 -{는}, {가}와 {wa}, {ga}에 대한 비교연구-

송남선
오사카경제법과대학

1. 머리말

한국어와 일본어는 흔히 주제-평언구조가 우세한 언어라고 한다. 두 언어는 주격표시인 {가}와 {ga}와 함께 주제표시라고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는}과 {wa}를 갖고 있다. 한국어의 {는}, {가}와 일본어의 {wa}, {ga}가 그 의미와 기능에서 많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것이 이제까지 지적되어 왔다. 또한 {는}, {가}와 {wa}, {ga}에 대한 연구도 서로 많은 영향을 주면서 진전되어 온 것 같다. 이는 {는}, {가}에 관한 연구논문들에 Mikami(1960, 1963), Kuroda(1965), Kuno(1973) 등 {wa}, {ga}에 관한 일본의 대표적인 연구들이 자주 인용되는 데서도 알 수가 있다.

{는}, {ga}와 {wa}, {ga}는 이제까지 그 공통성이 지적되어 왔으나 그것들을 실지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 차이를 밝히며 정확하게 기술 설명하는 것은 두 언어의 유형론적 특징을 이해함에 있어서뿐 아니라 한국인에 대한 일본어 교육과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서도 적지 않은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본고에서는 {는}, {가}와 {wa}, {ga}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개관하고 {는}, {가}와 {wa}, {ga}의 쓰임새를 분석, 비교하면서 두 언어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그 차이에 입각하여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타당한 설명을 제공하려고 한다.

2. 일본어의 {wa}, {ga}

여기에서는 주로 Kuno (1973), Inoue (1983), Noda (1996)에 따라 {wa}, {ga}의 의미와 기능을 개관한다.

2.1. {wa}의 쓰임

Kuno 에 의하면 {wa}는 주제를 표시하는 것과 ‘대조’를 의미하는 두 가지 쓰임새를 가진다.

(1) a. Taroo-wa gakusei-desu. (주제)

‘다로는 학생입니다.’

b. ame-wa hut-te-imasuga yuki-wa hut-te-imasen. (대조)

‘비는 내리고 있지만 눈은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wa}가 붙어서 주제가 될 수 있는 명사구는 일반적으로 문맥지정을 받은 명사구와 총칭명사들이다.

(2) a. hito-wa shaberu doobutsu-desu. (총칭명사)

‘사람은 말하는 동물입니다.’

b. sono hito-wa watashi-no tomodachi-desu. (문맥지정)

‘그 사람은 나의 친구입니다.’

{wa}가 첨가된 명사구가 문맥지정을 받을 수 없거나 일반적으로 안 받는다고 생각되는 아래와 같은 예들은 비문이 된다.

(3) a. *oozei-no hito-wa asobi-ni kimashita.

‘많은 사람들은 놀러 왔습니다.’

b. *ame-wa hurimashita.

‘비는 내렸습니다.’

한편 대조를 나타내는 {wa}는 위와 같은 제약을 안 받는다. 주제의 의미로서는 비문이 된 (3a)와 (3b)도 대조의 해석으로는 가능한 문장이다.

{wa}가 첨가된 명사구가 문맥지정을 받거나 총칭명사인 경우 그 명사구는 주제와 대조의 중의성을 갖게 된다.

(4) Taroo-wa hon-o yonda.

‘다로는 책을 읽었다.’

{wa}가 가지는 주제표시로서의 쓰임과 대조의 쓰임에 관한 논점의 하나는 어느 쓰임이 먼저냐 하는 것이다. Kuroda (1965)는 {wa}의 기본적인 의미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이라는 대조의 뜻이라 하였다. Inoue (1983)도 {wa}는 원래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구정보-신정보’의 정보구조에 나타날 때 대조의 의미가 희미해지면서 정보구조에서 드러나는 주제의 의미가 전면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편 Kikuchi (1995)와 Noda (1996)에서는 주제의 용법을 기본으로 삼고 주제를 나타내는 기능이 약해질 때 대조적 의미가 강해진다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이 논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wa}의 쓰임에 관하여 아래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다. 첫째, {wa}는 문두에 놓인 문맥지정을 받은 명사구나 총칭명사에 붙어서 그 명사구가 주제임을 표시한다. 둘째, {wa}는

의미적으로 대조를 나타낸다.

2.2. {ga}의 쓰임

조사 {ga}는 (5a, b, c)에서처럼 일회성의 행위나 사건을 나타내는 술어나 (5d, e)에서와 같이 일시적인 상태를 뜻하는 술어와 함께 쓰일 때 첨가된 명사구가 문장의 주어임을 표시한다.

(5) a. sono toki Paku Chison sensyu-ga gooru-o kimeta.

‘그 때에 박지성선수가 골을 넣었다.’

b. tegami-ga kita.

‘편지가 왔다.’

c. ame-ga hut-te-iru.

‘비가 내리고 있다.’

d. tsukue-no ue-ni hon-ga aru.

‘책상 위에 책이 있다.’

e. sora-ga aoi-ne.

‘하늘이 푸르군.’

위에 든 예문들은 특별한 문맥 없이도 자연스러운데 비해 다음 예문들은 모두 어색하다.

(6) a. saru-ga ningen-no senzoda.

‘월승이가 인간의 선조이다.’

b. Taroo-ga eigo-ga yoku dekiru.

‘다로가 영어가 잘 된다.’

c. Souru-ga samui.

‘서울이 춥다.’

(6)에 올린 예문들은 총칭성을 나타내거나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들이다. 예문 (6b)는 ‘지금 화제에 오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로만이 영어를 잘 한다’고 해석된다.

Kuroda (1965)와 Kuno(1973)는 전자의 {ga}는 ‘중립서술(neutral description)’을 나타내며 후자는 ‘總記(exhaustive listing)’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2.3. {wa}와 {ga}의 차이

Inoue (1983)는 문장이 나타내는 구정보와 신정보가 이루는 정보구조에 따라

{wa}와 {ga}의 쓰임과 그 차이를 설명하려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정보란 ‘청자가 알고 있다고 화자가 상정하는 정보’인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ㄱ. 선행하는 문맥이나 담화 속에서 청자가 이미 이해하고 있다고 화자가 판단한 정보
- ㄴ. 총칭명사나 ‘해’, ‘달’, ‘하늘’과 같이 경험상 그 지시대상이 널리 인정되어 왔다고 판단되는 명사구

이와 같은 구정보에는 {wa}가 사용되며 신정보에는 {ga}가 사용된다.

(7) A: John-wa nani-o shitanoka. ‘존은 무엇을 했는가?’

B: John-wa shyoosetsu-o kaita. ‘존은 소설을 썼다.’

ODL NEW

Inoue 는 구정보-신정보(OLD-NEW)가 제일 자연스러운 정보흐름을 반영한다고 하면서 이 정보구조에서 구정보를 지닌 명사구는 문장의 주제가 되며 {wa}가 첨가된다고 한다.

(8)의 대답은 다른 정보구조를 보여준다.

(8) A: nani-ga okot-tanda.

‘무슨 일이지 (무엇이 일어났는가)?’

B: John-ga kishya-ni noriokuret-anda.

‘존이 기차를 놓쳤어.’

(8)의 질문은 특정한 구정보를 상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대답에는 구정보가 나타날 수 없으며 문장전체가 신정보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문장의 주어는 신정보를 지니므로 {ga}가 주어지며 ‘중립서술’의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9)의 대답은 (7)의 대답과 반대의 정보구조를 가진다.

(9) A: dare-ga kono shyoosetsu-o kaita-no-ka. ‘누가 이 소설을 썼는가?’

B: John-ga kakimashita. ‘존이 썼습니다.’

NEW OLD

대답에 나타나는 ‘존’은 신정보를 지니므로 {ga}가 붙는다. 그러나 (8)의 경우와 달리 ‘존’은 總記를 나타낸다. Inoue 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보는

낡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것으로 이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9)의 예에서는 그 ‘담화의 원칙’에 역행하여 구정보 자리에 신정보가 주어져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그 명사구는 초점으로 되며 결과 총기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Kuno 와 Inoue 의 주장을 합하면 {wa}와 {ga}의 구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ㄱ. 어떤 명사구가 문맥지정을 받을 때 (구정보를 지닐 때) {wa}가 첨가되며 그 명사구는 문장의 주제가 된다.
- ㄴ. 문장 전체가 신정보를 지닐 때 문두의 명사구에는 {ga}가 첨가되며 그 명사구는 중립서술의 의미를 가진다. 이 경우 술어는 일회성행위나 사건, 일시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 ㄷ. 문두의 명사구가 신정보를 지니고 술부가 구정보를 지닐 때 그 명사구에는 {ga}가 첨가된다. 이 경우 문두의 명사구는 문장의 주어일 뿐 아니라 문장의 초점이 되므로 ‘총기’ 또는 ‘배타’의 의미를 가진다.

3. 한국어의 {는}과 {가}

여기에서는 [는/은](이하 {는}으로 적음)과 [가/이](이하 {가}로 적음)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개관하며 일본어의 {wa}, {ga}에 대한 연구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

3.1. {는}의 쓰임

한국어의 {는}은 일반적으로 문두의 명사구에 붙어 문장의 주제를 표시하며 ‘대조’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일본어의 {wa}와 유사하다.

(10) a. 철수는 학생이다. (주제)

b. 비는 오지만 눈은 안 온다. (대조)

최수영(1989)은 {는}은 문두에서는 주제를 표시하지만 의미론적으로는 항상 대조 또는 대조적 대립을 나타낸다고 한다. {는}이 문두에서 한정성을 가진 체언과 쓰일 때 대조의 뜻이 약화된다고 하였다. 바꾸어 말한다면 {는}에 의한 주제화는 문맥지정을 받은 명사구가 문두에 놓이는 경우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서정수(1996)에 의하면 어떤 체언이 한정성을 가진다고 분석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다.

- ㄱ. 해, 달, 불변의 진리를 가리키는 말

(11) 해는 서쪽에서 뜬다.

ㄴ. 총칭적 유개념으로 쓰이는 일반명사

(12) 사람은 말하는 동물이다.

ㄷ. 어떤 사실을 일반화하여 표현하는 명제, 일반적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 속담, 금언 등.

(13) a. 아침의 산책은 보약보다 낫다.

b. 빠른 걸기는 하체를 튼튼히 만든다.

c. 세상에 비밀은 없다.

ㄹ. 고유명사와 대명사

(14) a. 이순신 장군은 애국자였다.

b. 그는 언어학을 공부한다.

ㅁ. 앞서 담화나 문맥에서 언급된 사항

(15) a. 이 사람은 오늘 시험을 잘 친 모양이다.

b. 그 친구들은 모두 실패했어.

채완(1976)은 한정성요건이 주제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그런 주제에는 {는}이 첨가될 수 있다고 하였다.

3.2. {가}의 쓰임

한국어의 {가}는 일본어의 {ga}와 마찬가지로 중립적인 주어표시로서의 기능과 함께 ‘배타’ 또는 ‘배타적 대립’의 의미를 가진다.

(16) a. 하늘에 비행기가 날고 있다.

b. 청중들의 열의가 대단했다.

c. 책상 위에 책이 있다.

위의 예문들은 특별한 문맥에 의거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우며 {가}가 첨가된 명사구는 문장의 주어가 된다.

{가}가 첨가된 명사구가 배타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앞서 일본어 {ga}의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가}가 ‘NEW-OLD’의 정보구조에 나타나는 경우다.

- (17) a. 승냥이가 가축이냐?
 b. 아닙니다. 개가 가축입니다.

NEW OLD

이춘숙(1999:113)은 {가}가 가지는 ‘배타적 대립’의 의미는 ‘토씨 {가}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강세에 의해 명시된 임자씨항의 선택개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달리 최수영(1984: 243)에서는 {가}는 일반적으로 주격조사로 칭할 수 있지만 의미론적으로는 항상 ‘배타적 대립’이며 어순이나 문장형태와 강세에 따라 배타적 대립의 의미가 강하게 되거나 약하게 된다고 하였다.

3.3. 주제와 {가}

앞서 일본어의 {wa}, {ga}와 한국어의 {는}, {가}는 그 쓰임과 의미에서 많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일본과 한국에서의 연구도 거의 비슷한 방향과 이론적 틀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개관하였다. {wa}, {ga}와 {는}, {가}간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ㄱ. {wa}와 {는}은 문맥지정을 받은 (구정보를 지닌) 명사구에 붙으므로써 그 명사구가 주제임을 표시한다.
- ㄴ. {wa}와 {는}은 주제표시로 쓰이는 것과 함께 대조의 의미를 가진다.
- ㄷ. {ga}와 {가}는 문맥지정을 받지 않은 (신정보를 지닌) 명사구에 첨가된다.
- ㄹ. 문장 전체가 신정보를 나타내는 경우 {ga}와 {가}는 첨가된 명사구가 중립적인 주어임을 표시하며 술부가 구정보를 나타내는 문장에서는 첨가된 명사구가 배타적 대립의 의미를 나타낸다.

한편 {wa}, {ga}에 대한 연구와 {는}, {가}에 대한 연구는 한 가지 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일본어에서는 문장의 주제가 {wa}에 의해서만 표시된다는 점에 대하여 거의 이론을 찾아볼 수 없는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문장의 주제가 주로 {는}으로만 표시된다는 주장과 {는}과 함께 {가}도 주제표시로 쓰인다는 주장이 치열한 대립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정민(1973)은 주제화된 요소는 {는}으로 표시되고 그 요소는 동사와 관련을 맺는 것보다 문장 전체와 관련을 맺으며, 주제는 알려져 있거나 청자가 안다고 가정되는 요소라고 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완(1976)도 주제화에서는 한정성요건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고 주제는 {는}으로 표시된다고 하였다.

이들과는 달리 Sohn, H.M.(1980)은 주제란 ‘화자가 현재 언급하고 있는 대상’이라 하면서 구정보성이나 한정성은 주제의 2 차적 특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는}의 특성이 한정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면서 만일 한정성이 주제의 고유한 자질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례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8) A: 존이 어떻게 되었니?

B: a. 존이 아팠어.

b. ?존은 아팠어.

c. 아파

‘존’이 문맥지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8a)와 (18c)가 자연스럽고 (18b)는 대조의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로써 주제란 개념은 한정성이란 개념을 벗어나야 제대로 기술된다고 하였다.

성기철(1985)도 한정성이라는 것은 주제의 대하여성과 문두성에서 예상되는 한 속성일 따름이지 기본적인 요건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Sohn, H.M.을 따라 {는}이 한국어의 주제전용표시가 아니고 {가}도 주제표시로 쓰인다고 보았다. 그는 (19)에서 {는}이 쓰인 경우도 {가}가 쓰인 경우도 다 같이 총칭성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19) a. 상덕이는 사람이다.

b. 상덕이가 사람이다.

최수영(1984)에서는 {가}는 일반적으로 주격조사로 칭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주격조사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 ‘도’, ‘만’과 같이 주제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주장의 어느 것이 더 타당하냐를 밝히는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기술에서 논쟁점이 되는 것이 왜 일본어의 기술에서는 문제가 안되는가에 두려고 한다. 다음 장에서 그 원인을 일본어와 한국어에서의 주제문과 무제문을 만드는 기본적인 방식에서의 차이에서 찾으려 나아가 그것이 일본어 {wa}, {ga}와 한국어 {는}, {가} 기술에 시사하여 주는 바를 기술하고자 한다.

4. 한국어와 일본어의 주제문과 무제문

이하 한국어의 {는}, {가}와 일본어의 {wa}, {ga}가 가지는 차이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그 차이가 두 언어가 주제를 세움에 있어서 ‘판단의 유무’란 대립과 ‘관련성의 유무’의 대립 중 어느 대립을 우선시하느냐에 기인한다는 것을 논하고자 한다.

4.1. {는}, {가}와 {wa}, {ga}의 차이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는}, {가}와 {wa}, {ga}는 주로 그 공통성과 유사성만 강조되어 왔으며 그 유사를 전제로 연구가 되어온 것 같다. 그러나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계통적인 차이가 드러난다.

4.1.1. 총칭성과 특칭성

{는}, {가}와 {wa}, {ga}는 술어의 의미에 따르는 쓰임에서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는}, {가}와 {wa}, {ga}는 술어가 일회성 행위나 일시적 상태를 나타낼 때는 다 같이 대조나 배타적 의미의 해석 없이 쓰일 수 있다.

(20) a. 개는 짖는다.

b. 개가 짖는다.

(21) a. inu-wa hoeru.

‘개는 짖는다.’

b. inu-ga hoeru.

‘개가 짖는다.’

{는}과 {wa}가 쓰인 (20a)와 (21a)는 개 일반에 대한 진술이라고 이해되는 경향이 있는 한편 {가}와 {ga}가 쓰인 (20b)와 (21b)는 어느 특정한 장면이나 사태에 대한 묘사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두 언어 사이에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술어가 지속적인 상태나 반복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에서다.

(22) a. 아침의 산책은 보약보다 낫다.

b. 아침의 산책이 보약보다 낫다.

(23) a. 빠른 걸기는 하체를 튼튼히 만든다.

b. 빠른 걸기가 하체를 튼튼히 만든다.

(24) a. hayaaruki-wa karada-ni ii.

‘빠른 걸기는 몸에 좋다.’

b. [?]hayaaruki-ga karada-ni ii.

‘빠른 걸기가 몸에 좋다.’

(25) a. 이순신 장군은 애국자였다.

b. 이순신 장군이 애국자였다.

(26) a. Li Sunshin syoogun-wa aikokushya-dat-ta.

‘이순신 장군은 애국자였다.’

b. [?]Li Sunshin syoogun-ga aikokushya-dat-ta

- ‘이순신 장군이 애국자였다.’
- (27) a. 백두산은 높다.
b. 백두산이 높다.
- (28) a. Hujisan-wa takai.
‘후지산은 높다.’
b. ?Hujisan-ga takai.
‘후지산이 높다.’
- (29) a. 영희는 피아노를 잘 친다.
b. 영희가 피아노를 잘 친다.
- (30) a. Hanako-wa piano-ga jyoozu-da.
‘하나코는 피아노를 잘 친다.’
b. ?Hanako-ga piano-ga jyoozu-da.
‘하나코가 피아노를 잘 친다.’
- (31) a. 철수는 매일 학교를 다녀요.
b. 철수가 매일 학교를 다녀요.
- (32) a. Taroo-wa mainichi gakko-ni kayoimasu.
‘다로는 매일 학교를 다닙니다.’
b. ?Taroo-ga mainichi gakko-ni kayoimasu.
‘다로가 매일 학교를 다닙니다.’

위의 예문들 중 {가}가 쓰인 한국어 예문들은 주어가 ‘배타’의 해석을 안 받아도 자연스러운데 비해 {ga}가 쓰인 일본어 예문들은 ‘배타’의 해석 밖에는 용인되지 않는다.

서정수(1996: 110-111)를 따르면 {는}을 가진 예문들과 {가}를 가진 예문들의 차이는 ‘총칭성(generic)’과 ‘특칭성(specific)’이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될 것이다.

- (33) a. 사람은 불완전하다.
b. ?사람이 불완전하다.
- (34) a. 사람이 걸어간다.
b. ?사람은 걸어간다.

그는 {는}은 총칭성을 가리키며 {가}는 특칭성을 가리킨다고 한다. (33)는 일반적 사실을 가리키므로 ‘사람은’이 자연스럽고 ‘사람이’는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어색하다고 한다. 한편 (34)는 특정한 사태를 나타낸다고 생각되므로 ‘사람이’가 적절하고 ‘사람은’은 어색하다. 저자는 {는}과 {가}의 차이를 이해함에 있어서 총칭성과 특칭성이란 개념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33b)가

자연스러운 문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그 근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언급한다. 서정수는 {는}이 가진 총칭성 범주는 아래와 같은 하위구분을 가진다고 한다.

- (35) a. 사람은 말하는 동물이다. [진리]
- b. 철수는 프랑스어를 잘한다. [속성]
- c. “book”은 ‘책’이다. [정의]
- d. 인디애나 대학은 블루밍턴에 있다. [영구적 상태]

(22)에서 그것이 세상에서 널리 인정된 생활의 지혜를 나타내는 금언으로 쓰인다면 {는}이 첨가된 (22a)가 적절하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사태를 상정하면 (22b)가 적절해진다. 어떤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았다가 아침산책을 거듭하므로써 건강을 회복시킨 경험담을 이야기할 때는 (22b)가 자연스러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나 정의로서는 (25a)가 쓰이겠지만 이순신 장군에 관한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은 직후에 하는 장군에 대한 찬양의 말로서는 (25b)가 자연스러울 것이다. (27a)와 (29a)는 각각 ‘백두산’과 ‘영희’의 속성에 대한 객관적 진술로서는 적절하다. 한편, 백두산을 바라보면서 또는 영희의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서 시각 또는 청각을 통하여 들어온 인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발화로서는 (27b)와 (29b)가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31a)와 (31b)는 반복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술어를 가지고 있다. 두 문장 사이의 차이는 그것들을 각각 주어의 속성을 더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36a)와 같은 문맥과 어느 특정한 사태를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36b)와 같은 문맥 속에 넣으면 더 뚜렷해진다.

- (36) a. 철수는 매일 꼬박꼬박 학교에 다니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 b. 예전엔 결석만 하더니, 요즘 철수가 매일 학교를 다녀요.

위의 예문들에 대한 고찰이 시사하여 주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이점은 한국어에서의 총칭성과 특칭성을 나타내기 위해 {는}과 {가}가 일관되게 가려 쓰이는데 비해 일본어에서는 그것이 (21)에서처럼 술어가 일회성 행위나 일시적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서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술어가 지속적 상태나 반복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경우 총칭성과 특칭성을 나타내는 문장 양쪽에 {wa}가 첨가되므로써 중의성을 드러내게 된다.

4.1.2. 문맥지정의 유무

두번째 차이는 담화 속에서 문맥지정을 받은 명사구가 문두에 놓이는 경우

일본어에서는 일관되게 {wa}가 첨가되는데 비해 한국어에서는 {가}가 첨가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아래에 올린 한국어 예문들에서 밑줄을 그은 명사구가 {가}를 가지면 자연스러우나 {는}을 가지면 ‘대조’의 뜻을 드러내므로써 문장이 어색하여진다. 한국어 예문들과 같은 상황을 가리키는 일본어 예들에서는 그와 반대로 밑줄 그은 명사구에 {wa}가 주어지면 자연스러우나 {ga}가 주어지면 ‘배타’의 뜻을 드러내어 어색해진다.

- (37) 어머니: 철수야, 시험 어땀니?
 아들: 그저 그랬어요.
 아버지: 이 애가/이 애는 오늘 시험 잘 친 모양이네.
- (38) 어머니: Taroo, shiken doodat-ta?
 ‘다로, 시험 어땀니?’
 아들: maamaadat-ta-yo.
 ‘그저 그랬어요.’
 아버지: koitsu-wa/koitsu-ga shiken umaku it-ta mitaida-na.
 ‘이 놈이 시험 잘 친 모양이로군.’
- (39) A: 너 철수 알지?
 B: 그래, 개 요즘 어떻게 지내니?
 A: 그 놈이/그 놈은 부자가 되었어.
- (40) A: omae, Taroo shit-teru-daroo?
 ‘너 다로 알지?’
 B: aa, doo shi-teru?
 ‘그래, 어떻게 지내니?’
 A: aitsu-wa/aitsu-ga kanemochi-ni nat-ta-yo.
 ‘그 놈이 부자가 되었어.’
- (41) (진우 엄마가 아빠에게 하는 말)
 진우가 요즘 잘 하고 있어요. 그 애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잘 하고요.
우리 아들이/우리 아들은 참 착하지요.
- (42) Taroo-ga konogoro ganbat-teru-noyo.
 ‘다로가 요즘 잘 하고 있어요.’
 anoko-wa benkyoo-mo ganbat-teru-shi supootsu-mo ganbat-teru-shi.
 ‘그 애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uchi-no go-wa/uchi-no ko-ga erai-de-shyoo.
 ‘우리 아들이 착하지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어의 {는}과 일본어의 {wa}는 (43)과 (44)에서 보듯이

문맥지정을 받은 명사구에 붙어 그 명사구가 주제임을 표시한다.

(43) 어제 한 소년이 찾아왔다. 그 소년은 이름을 철수라 하였다.

(44) Kinoo hitorino shoonen-ga tazunete kita.

‘어제 한 소년이 찾아왔다.’

Sono shyoonen-wa na-o Taroo-to itta.

‘그 소년은 이름을 다로라 했다.’

(37-42)의 예문 중 일본어 예들은 문맥지정을 받은 명사구가 {wa}를 가지므로써 주제가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예들에서는 문두에 놓인 명사구가 문맥지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 표시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어 주제표시에 관하여 많은 논쟁과 혼란을 초래한 원인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해 두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는}, {가}와 {wa}, {ga}를 비교해 보면 그 유표성(markedness)에서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45) 우리-Ø/-가/-는 갑시다.

(46) watash-tachi-Ø/-ga/-wa ikimashyoo. ‘우리 갑시다.’

(45)와 (46)에서 가장 중립적인 권유, 다시 말하여 무표의 진술은 조사를 안 가지는 문장들이다. {가}나 {ga}가 첨가되면 한국어, 일본어 할 것 없이 배타의 뜻을 가지게 되며 {는}이나 {wa}가 붙으면 대조의 뜻을 가지게 되므로써 유표성이 높아진다.

다음 예들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밑줄을 그은 명사구가 아무런 조사를 안 가지는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그 무표의 발화에 가까운 것은 한국어에서는 {가}가 첨가된 경우이며 일본어에서는 {wa}가 첨가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47) (생선을 먹으면서) 이 생선(이) 맛 있네.

(48) (옷 가게에서 옷을 손에 들고) 이 옷(이) 비싸네.

(49) kono sakana-(wa) oishii-ne. ‘이 생선 맛있네.’

(50) kono huku-(wa) takai-ne. ‘이 옷 비싸네.’

(51) A: 철수 어떻게 되었니?

B: 철수/철수가/[?]철수는 아파요.

(52) A: Taroo dooshita? ‘다로 어떻게 되었니?’

B: Taroo/Taroo-ga/[?]Taroo-wa byooki-nan-desu. ‘다로 아파요’

이상 고찰한 {는}, {가}와 {wa}, {ga}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ㄱ. {는}이 쓰이는 환경에서는 {wa}도 쓰일 수 있다. 그러나 {wa}가 쓰이는 환경에서

{는}이 쓰이는 경우와 {가}가 쓰이는 경우가 있다. {ga}가 쓰이는 환경에서 {가}도 쓰일 수 있다. 그러나 {가}가 쓰이는 환경에서 {ga}가 쓰이는 경우와 {wa}가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 사실은 일본어의 {wa}가 한국어의 {는}보다 넓은 분포를 가지며, 한국어의 {가}가 일본어의 {ga}보다 넓은 분포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무표의 사항에 {가}가 주어지면 일본어에서는 {wa}가 주어지는 경향이 있다.

- ㄴ. 한국어에서는 문맥지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는}이 ‘총칭성’을 나타내며 {가}가 ‘특칭성’을 나타낸다.
- ㄷ. 일본어에서는 문장이 총칭성을 나타내든 특칭성을 나타내든 문맥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는}이 주어진다.

4.2. 판단 주제와 관련성 주제

한국어의 {는}, {가}나 일본어의 {wa}, {ga}는 주로 ‘구정보와 신정보’의 대립, 한정성이나 문맥지정의 유무의 시각에서만 연구되어 온 듯 싶다.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한국어 연구에서는 한정성을 가진 명사구에 {는}뿐 아니라 {가}가 첨가된 경우에도 그 명사구가 주제라는 주장이 있다.

- (53) 어제 한 젊은이가 나를 찾아 왔다. 그는 대학교 친구 아들이었다.
- (54) A: 저 배 참 크다.
B: 그렇네.
A: 보라고. 배가 움직인다.

(53)과 (54)의 밑줄을 그은 명사구는 둘 다 한정성을 가진다. 그러나 그것들이 문두에 놓여 있다고 하여 주제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둘 다 주제라면 왜 하나는 {는}을 취하고, 다른 하나는 {가}를 취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53)의 ‘그’는 구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문장 전체가 그 인물에 대하여 ‘내 대학교 친구 아들이’라는 신정보를 부여하기 위한 진술이라는 의미에서 ‘그’가 주제라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54)의 ‘배가 움직인다’는 (53)과 마찬가지로 ‘OLD-NEW’의 정보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54)의 ‘배가 움직인다’란 발화의 목적은 구정보를 지닌 ‘배’에 대하여 어떤 새로운 정보를 부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배가 움직인다’는 사건을 통채로 전달하려는 데 있을 것이다. 그 점에서 (54)의 마지막 발화는 문두의 명사구에 구정보를 지닌다고 볼 수 없는 (55)와 같은 정보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며 바로 그 공통성으로 인해 둘 다 {가}를 취하고 것으로 여겨진다.

- (55) A: 무슨 일이나?

B: 배가 움직입니다.

위의 예들은 한국어의 {는}, {가}의 쓰임에 대한 정확한 기술을 위해서는 한정성이나 문맥지정의 유무 이외의 시각이 요구됨을 시사하여 준다.

한국어 기술에서는 일본어의 {ga}보다 넓은 분포를 가지는 {가}의 쓰임에 대한 기술이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는 것처럼 일본어 기술에서는 한국어의 {는}보다 넓은 분포를 가지는 {wa}에 대한 설명에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것 같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른바 ‘총칭성’과 ‘특칭성’이 한국어에서는 {는}과 {가}에 의하여 계통적으로 구별된다.

- (56) a. 개는 짖는다. (개는 짖는 동물이다.)
b. 개가 짖는다. (특정한 사태를 가리킴)
- (57) a. 백두산은 높다. (일반적 정의 또는 속성에 대한 진술)
b. 백두산이 높다. (특정한 상황에서의 진술)

그러나 일본어에서는 이 대립이 술어가 일회성 행위나 일시적 상태를 나타낼 때는 {wa}와 {ga}에 의하여 드러나지만 술어가 지속적 상태나 반복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 두 가지 의미가 {wa}에 의하여 수렴되므로써 ‘총칭성’과 ‘특칭성’의 대립이 모호해지거나 중의성을 띄게 된다.

- (58) a. tori-wa tobu. ‘새는 난다.’ (새는 나는 동물이다.)
b. tori-ga tobu. ‘새가 난다’ (특정한 사태를 가리킴)
- (59) Hujisan-wa takai. ‘후지산은 높다.’
(일반적 정의, 속성에 대한 진술/특정한 상황에서의 진술)

{wa}가 가지는 이러한 중의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분석의 결여가 일본어의 주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기술의 장애가 되어 있는 듯하다.

Noda (1996)는 주제에는 ‘판단의 주제’와 ‘관련의 주제’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판단의 주제’는 ‘그 때 이외의 사정도 고려한 판단의 대상’을 나타낸다. 바꾸어 말한다면 판단 주제라는 것은 그 사태가 다른 시각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판단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필수 사항으로 쓰이는 주제를 말한다. 이러한 문장에서는 술어는 지속적인 상태나 반복되는 행위를 나타낸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 온 총칭성을 나타내는 (56a, 57a, 58a)와 같은 예문들이 다 판단 주제를 가진 문장으로 정의될 수 있다.

판단주제는 한 문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으로서 통사 차원의 개념이며 문맥지정과 같은 담화 차원의 개념에서 독립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60)의

판단주제인 ‘Tookai daigaku’는 담화 속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경우라든 쓰일 수 있다.

- (60) Tookai daigaku-wa tokyo-ni at-ta.
‘도카이대학교는 도쿄에 있었다.’

한편, 관련성주제란 선행문맥이나 담화장면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주제이다. 관련성주제는 (61)에서처럼 담화 속에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거나 연결을 다듬기 위해 쓰이는 담화차원의 개념이다.

- (61) a. 어제 한 소년이 나를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철수라 하였다.
b. 어제 한 소년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이름을 철수라 하였다.

관련성주제를 가진 문장은 OLD-NEW 의 정보구조를 가진다.

아래에서 판단주제와 관련성주제라는 개념의 도입이 {는}, {가}와 {wa}, {ga}의 분포의 차이와 그 특성을 설명하는데서 어떻게 유의한가를 검토한다.

4.3. 판단의 유무

판단의 주제를 가진 문장(이하 판단주제문)은 (56a, 57a, 58a)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제표시로 한국어에서는 {는}, 일본어에서는 {wa}가 쓰인다. 주제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판단주제문과 대립을 이루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판단을 내포하지 않는 (56b, 57b, 58b)와 같은 문장들이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일본문법에서 ‘현상문’, ‘현상묘사문’ (Nitta 1986), ‘무제문’(Noda 1996) 등의 이름으로 연구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Noda 를 따라 ‘무제문’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Noda 는 무제문을 ‘어떤 시간과 공간에 일어나거나 존재하는 현상을 주관에 의한 가공을 하지 않고 언어표현화하여 전달하는 것’이라 하였다. Uchida(1989: 35-36)는 판단주제문인 (62a)와 무제문인 (62b)의 대립을 논리적인 ‘-monoda 형’(-는 법이다, -기 마련이다)과 감성적인 ‘-kotoyo 형’(-군, -구나)의 대립으로 설명하였다.

- (62) a. kaki-no mi-wa akai. (monoda)
‘감 열매는 붉다 (붉기 마련이다).’
b. kaki-no mi-ga akai.(kotoyo)
‘감 열매가 붉다 (붉군).’

일어난 현상을 그대로 묘사하는 무제문 역시 판단주제문처럼 담화 속에서 독립성을 가진 통사차원의 개념이며 그 독립성으로 인하여 판단주제문과 마찬가지로 담화 첫머리에 쓰일 수가 있다.

무제문의 주어는 한국어에서는 항상 {가}로 표시되는데 비해 일본어에서는 술어가 (58b)나 (62b)와 같이 일회성행위나 일시적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ga}로 표시되며 술어가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59a)와 같은 경우에는 판단주제해석과 무주제해석이 양쪽 {wa}에 의하여 표시되므로 그 대립이 모호해진다.

4.4. 관련성의 유무

관련성주제를 가진 문장(이하 ‘관련주제문’)은 선행하는 문맥이나 담화에서 언급된 대상에 대하여 새로운 정보를 부여하기 위한 담화 차원의 개념이다. 따라서 그것은 ‘ODL-NEW’의 정보구조를 가진다.

- (63) a. 너는 무슨 공부를 했어?
 b. 나는 역사 공부를 했습니다.

OLD NEW

- (64) a. kimi-wa nan-no benkyo-o shimashitaka.
 ‘당신은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 b. watashi-wa rekishi-no benkyo-o shimashita.

OLD NEW

‘나는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주어자리에 놓인 관련성주제는 항상 한국어에서는 {는}, 일본어에서는 {wa}로 표시된다. 관련성주제문과 대립을 이루는 것은 그와 반대의 정보구조, ‘NEW-OLD’를 전달하는 문장, 즉 술부가 관련성주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문장(이하, 술어주제문)이다.

- (65) a. 누가 왔어?
 b. 철수가 왔습니다.

NEW OLD

- (66) a. dare-ga kitano ‘누가 왔어?’

- b. Taroo-ga kimashita. ‘다로가 왔습니다.’

NEW OLD

술어주제문의 주어는 항상 한국어에서는 {가}, 일본어에서는 {ga}로 표시된다.

4.5. 판단대립과 관련성대립

앞서 우리는 주제표현에 관한 두 가지 대립, 즉 판단의 유무와 관련성의 유무를 상정하고 그것과 {는}, {가}와 {wa}, {ga}의 대응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대응관계는

다음과 같다.

- (67) 판단이 있음(판단주제문) -> 한국어 {는}, 일본어 {wa}
판단이 없음(무제문) -> 한국어 {가}, 일본어 {ga}
예외: 일본어에서 술어가 지속적인 상태나 반복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
양자가 {wa}로 표시됨
관련성이 있음(관련성주제문) -> 한국어 {는}, 일본어 {wa}
관련성이 없음(술어주제문) -> 한국어 {가}, 일본어 {ga}

본고의 중심적인 주장은 위의 두 가지 대립의 우열관계가 한 언어에서의 주제에 관한 표현의 기본양태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라 한국어와 일본어의 주제표현에 관한 두 가지 가설을 세우고 그것들이 4.1 에서 밝힌 {는}, {가}와 {wa}, {ga}의 공통성과 차이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어떤지를 검토해 본다.

- (68) 가설 I: 한국어에서는 판단의 유무에 관한 대립이 1 차적대립이며 관련성유무에 관한 대립은 전자에게 종속된 2 차적 대립이다. 관련성유무의 대립은 판단의 유무의 대립에서 판단이 없는 경우에만 드러난다.
가설 II: 일본어에서는 관련성유무의 대립이 1 차적대립이며 판단의 유무에 관한 대립은 관련성유무의 대립에 종속된 2 차적대립이다. 판단의 유무의 대립은 관련성유무의 대립에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드러난다.

앞서 지적한 한국어와 일본어의 한 가지 차이는 일본어에서는 주어자리에 놓인 명사구가 문맥지정을 받은 경우 항상 {wa}가 첨가되는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가}가 첨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다.

- (69) A: omae, Taroo shit-te-iru-daroo. ‘너 다로 알지?’
B: aa, doo shiteru. ‘그래 어떻게 지내니?’
A: aitsu-wa kanemochi-ni nat-ta-yo. ‘그 놈 부자가 되었어.’
(70) (생선을 먹으면서) kono sakana-wa oishii-na. ‘이 생선 맛있네.’
(71) A: 너 철수 알지?
B: 그래, 어떻게 지내니?
A: 그 놈이/그 놈은 부자가 되었어
(72) (생선을 먹으면서) 이 생선이/이 생선은 맛있네.

일본어 예문 (69)와 (70)에서 ‘aitsu(그 사람)’와 ‘kono sakana(이 생선)’는 관련성을 가지므로 가설 II 에 의하여 {wa}가 첨가된다.

한편 한국어 예문 (70)과 (71)에서 ‘이 생선이 맛있다’와 ‘그 놈이 부자가 되었어’라는 명제는 “생선”과 “그 놈”에 대한 어떤 속성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미각에서 나타나는 감상이나 일어난 사건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II에 의하여 무제문이 되며 주어에 {가}가 첨가된 것이다.

예 (71)과 달리 대상에 대하여 어떤 속성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다음 예에서는 가설 I에 의하여 판단주제문이 되며 주어에 {는}이 첨가될 수 있다.

- (73) A: 철수가 요즘 매일 학교를 다닌다지?
B: 그래, 그 사람은 원래 부지런한 사람이지.

판단의 유무에 관련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묘사문에서는 2 차적 대립인 관련성유무의 대립이 드러난다고 본다

- (74) 어제 한 소년이 찾아왔다. 그는 이름을 철수라 하였다.

이 경우 관련성을 가진 ‘그’에는 가설 I에 의하여 {는}이 첨가된다. 다음으로 우리가 설명하여야 할 {는}, {가}와 {wa}, {ga}의 차이는 아래에 든 사례들이다.

- (75) a. 개는 짖는다.
b. 개가 짖는다.
(76) a. 백두산은 높다.
b. 백두산이 높다.
(77) a. inu-wa hoeru. ‘개는 짖는다.’
b. inu-ga hoeru. ‘개가 짖는다.’
(78) a. hujisan-wa takai. ‘후지산은/후지산이 높다.’
b. ^hujisan-ga takai.

(75a)와 (76a)는 “개”와 “백두산”의 속성에 대한 판단 또는 정의를 나타내는 구문으로 이해되기에 가설 II에 의하여 판단주제문이 되며 {는}이 첨가된다. 한편 (75b)와 (76b)는 특정한 사태나 영상을 그대로 묘사하는 표현으로 이해되기에 가설 II에 의하여 무제문이 되며 주어에 {가}가 첨가된다.

일본어 예문 (77a)에서 주어의 “inu(개)”는 총칭성 해석을 받는다. 총칭성을 나타내는 명사구는 문맥지정 또는 관련성을 가진다고 여겨지므로 가설 I에 의해 관련성주제문이 되며 주어에 {wa}가 첨가된다. (78a)는 판단주제문과 무제문의 해석이 둘 다 가능하나 전자에서는 주어가 총칭성을 가지며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련성유무의 대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가설 I 에 의해 관련성주제문이 선택되어 주어에 {wa}가 첨가된다. 그리고 무제문해석은 뒤에 숨어버리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77b)와 같이 술어가 일회성행위나 일시적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 문장은 벌어지는 사태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해석을 받는다. 이 때 주어는 일반적으로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다.

(79) a. ame-ga huru. ‘비가 내린다.’

b. ookuno hito-ga kita. ‘많은 사람이 왔다.’

그러므로 가설I에 의하여 2차적 대립이 드러나 무제문이 되며 주어에 {ga}가 쓰인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설명해야 할 차이는 일본어의 {wa}가 한국어의 {는}보다 넓은 분포를 가지며 한국어의 {가}가 일본어의 {ga}보다 넓은 분포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담화를 이루는 정보구조 중 제일 자연스러운 것은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구정보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정보으로 이행하는 ‘OLD-NEW’의 구조일 것이다. Inoue (1983: 48)는 이것을 담화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관련성유무의 대립이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일본어에서는 제일 자연스러운 정보구조 ‘OLD-NEW’에서 쓰이는 {wa}의 분포가 넓어지기 마련이다. 그에 비해 담화원칙에 역행하는 ‘NEW-OLD’구조에서 전형적으로 쓰이는 {ga}는 상대적으로 그 사용빈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한편 한국어에서는 판단유무의 대립이 우선적으로 드러나므로 판단주제문과 무제문이 둘 다 같이 많이 쓰이면서 {가}의 분포가 일본어의 {ga}보다 상대적으로 넓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한국어의 {는}, {가}와 일본어의 {wa}, {ga}는 많은 유사점을 보이면서도 다음과 같은 차이를 드러낸다.

- ㄱ. 한국어의 {가}는 일본어의 {ga}보다 넓은 분포를 가지며 일본어의 {wa}는 한국어의 {는}보다 넓은 분포를 가진다.
- ㄴ. 일본어에서는 주어 자리에 놓인 명사구가 문맥지정을 받는 경우 그 명사구에는 항상 {wa}가 쓰이는 데 비해 한국어에서는 {가}가 쓰이는 경향이 있다.
- ㄷ. 한국어에서는 ‘총칭성’과 ‘특칭성’을 나타내는 구문이 {는}과 {가}에 의하여 계통적으로 구별되는데 비해 일본어에서는 그 대립이 술어가 일회성행위나 일시적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경우에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이와 같은 {는}, {가}와 {wa}, {ga}의 차이는 아래의 두 가지 가설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가설 I: 한국어에서는 판단의 유무에 관한 대립이 1 차적 대립이며 관련성유무에 관한 대립은 전자에 종속된 2 차적 대립이다. 관련성유무의 대립은 판단유무의 대립에서 판단이 없는 경우에만 드러난다.

가설 II: 일본어에서는 관련성유무의 대립이 1 차적 대립이며 판단유무에 관한 대립은 전자에 종속된 2 차적 대립이다. 판단유무의 대립은 관련성유무의 대립에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드러난다.

참고문헌

- 목정수(2005) 국어 이중주어 구문의 새로운 해석, 『언어학』 41, 한국언어학회, 75-98.
- 박철우(1996) 국어의 문장화제-이중주어 구문과 관련하여-, 『언어연구』 14, 35-51.
- 서정수(1996) 『개정 현대 한국어 문법연구의 개관』, 한국문화사.
- 성기철(1985) 국어의 주제 문제, 『한글 188』, 한글학회.
- 신창순(1976) 국어 조사의 연구(II)-격조사의 의미기술-, 『국어국문학』 71, 1-41.
- 유동석(1998) 국어의 격중출구성에 대하여, 『국어학』 31, 307-337.
- 이익섭/임홍빈(1983) 『국어문법론』, 서울: 학연사.
- 이춘숙(1999) 토씨 {가}와 {는}의 의미기능, 『한글』 243, 한글학회, 179-209.
- 채완(1976) 조사 ‘-는’의 의미, 『국어학』 4, 국어학회.
- 井上和子(1983) 『日本語の基本構造』、三省堂.
- 菊地康人(1995) 「は」構文の概観、益岡隆志(編) 『日本語の主題と取り立て』、研究社、139-152.
- 久野暲(1973) 『日本文法研究』、大修館書店.
- _____ (1983) 『新日本文法研究』、大修館書店.
- 三上章(1960) 『象は鼻が長い』、くろしお出版.
- _____ (1963) 『日本語の論理』、くろしお出版.
- 仁田義雄(1986) 現象描写文をめぐって、『日本語学』 5-2、56-69.
- _____ (1997) 『日本語文法研究序説』、くろしお出版.
- 野田尚史(1996) 『「は」と「が」』、新日本文法選書 1、くろしお出版.
- Kuroda, S.Y. (1965) *Generative Grammatical Studies in the Japanese language*. PhD. Dissertat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Sohn, H.M. (1980) Theme Prominence in Korean, *Korean Linguistics* 2, 1-19.
- Song, N.S. (1993) *Thematic Relations and Transitivity in English, Japanese, and Korean*, University of Hawaii Press.

